

Magandang umaga po(마간당 우마-가쁘)
안녕하세요 ?



13기 평가시난팀 라스트광
임수정. 채지원. 박찬수. 권준성 입니다

먼저, 늦게올려 죄송합니다

한달동안 건강한 삶 보내셨나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작했던 국내훈련이 엇그제 같은데
별써 출국 전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을 시작한 우리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생활화 하였으면하는 350ppm!
라스트광의 350ppm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팁블러 사용하기



국내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익숙해진 텀블러 사용하기

- 1)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는 라팡
 - 2) 간식을 먹을 때도 함께하는 텀블러
 - 3) 심시일반을 준비하며 브라우니를 만들 때도 텀블러
- 텀블러를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절약된다는 점을 알고서는 나의 작은 행동인 텀블러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가까워져버린 텀블러 텀블러는 사랑입니다!

다만, 사용 후 깨끗한 세척이 필요하겠죠?

2. 근거리 걸어다니기



안양을 둘러보고 마을을 알아보는 시간!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았던 마을의 곳곳
 우리 마을에도 관심을 갖고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마을걷기 뿐 아니라 에드나쌤께 따갈로그 수업을 받으려갈 때
 5층이하는 계단이용하기!
 씩씩하게 계단을 이용했던 광가시난팀

+) 자전거도 배우고 자전거를 타고 차가운 바람에 송송 달렸던
 광가시난팀
 저는 22년만에 자전거공포를 극복하였다하지요



3. 음식은 맛있게
 깨~꿇이 먹기!



국내훈련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먹는것이 힘이에요 그것은 사랑이라.
광가시난팀은 식단표를 정해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도했구요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았습시다
필리핀에 가서도 기대되는 우리!



설거지는 우리에게겐 필수지~
튼튼하고 가정적인 광가시난팀의 두 어머니이자 남자
설거지할때 물을 절약하며 사용하기

광가시난팀은 지난 3주간 안양에서 350ppm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350ppm을 실천하기위한 1단계인 우리는 삶에 녹여있지는 않았습시다
평소 생활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반성해야할 점이 많지만
작은 실천을 하기위해서는 인식하는 것이 먼저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광가시난팀은 더 나은 모습으로 350ppm을 실천하며
350ppm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구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
앞으로의 수고도 응원합니다